‘여성 출가자 인권신장’ 이끈 미얀마 스님

미얀마 셰얄레이 케투밀라 스님

비구니 계맥 단절된 미얀마
열악한 불교 여성인권 직시
20년 이상 인권운동에 매진
“인정과 존중” 요구해 주목

김민재 객원기자

여성 출가자는 인정해도 비구니나 사미니를 인정하지 않는 남방불교권에서 여성 출가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출가자가 있다. 지난 9월 5일 일본 영자신문 ‘재팬 타임즈’는 미얀마의 여성 출가자 셰얄레이 케투말라의 활동을 보도했다.

남아선호사상과 비구승단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얀마 사회에서 셰얄레이 케투말라의 존재는 특별하다. 셰얄레이(Sayalay)란 비구니 계맥이 단절된 미얀마 승가에서 재가여성이 집을 떠나 수행정진에 힘쓰는 여성출가자를 이른다. 올해로 세수 40세의 셰얄레이 케투말라는 10대 시절, 결혼과 자녀라는 사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해 20년 이상을 여성인권 신장에 힘쓰고 있다.

케투말라는 “미얀마에서 남성 출가자는 불교 부흥에 힘쓴다며 박수갈채를 받지만, 여성 출가자는 항상 천대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미얀마의 셰얄레이들은 현재 6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나 공식적인 집계나 조사가 진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셰얄레이들은 율장에 적합한 출가자가 아니기에 삭발을 하더라도 가사를 수할 수 없으며, 분홍색 원피스에 가사 색깔과 비슷한 어깨띠를 두른 복장을 입는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케투말라는 미얀마 불교계가 여성출가자를 인정하고 존중하길 촉구하는 운동을 진행했다. 스스로는 스리랑카에 유학, 201년에 2개의 불교학 학위를 취득했다. 케투말라는 귀국 후 셰얄레이와 여성불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우로 재단의 대표를 맡을 수 없었으며, 끝내 재단경영권을 장악한 비구승단에 의해 총비서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케투말라는 “미얀마에서 여성출가자들이 비구스님들과 동등한 지위를 얻을 희망은 사실상 없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미얀마와 동남아시아에서 비구니가 있었다고 증언하지만, 계맥이 끊인지 천년도 넘었기에 부활시킬 방법도 없다. 그러나 나는 여성 출가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수 만명의 여성 출가자를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셰얄레이 케투말라 스님(가운데). 사진 출처=재팬타임즈

2016년부터 지지자들과 함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케투말라는 젊은 셰얄레이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4,800개 이상의 불교 교육센터를 설립했다. 현재는 불교적 리더십과 경영을 교육하는 단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케투말라는 “변화를 추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만들기보다, 사회 전반에 걸쳐 ‘협력자’와 ‘동료’를 찾는 것”이라며 자신을 내보였다. 보수적인 미얀마 불교계에서 케투말라의 투쟁은 현대 미얀마 여성인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다.

근현대 印·日 이은 불화 복원 착수

근현대 일본불화 대가
노우스 코세츠 특별전
복원기금의 마련 목적


다카마츠 현립박물관에 전시중인 노우스의 작품들.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일본불화의 거장으로, 자신의 작품을 통해 인도불교와 일본불교의 가교가 됐던 거장 노우스 코세츠 화백의 특별전이 일본에서 열렸다. 화백의 고향에서 열린 이번 특별전은 인도에 남아있는 그의 작품을 복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의 일환이다. 9월 1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다카마츠(高松)시에서 열린 특별전의 모습을 보도했다.

근현대 일본의 화가인 노우스 코세츠(1885-1973) 화백은 일반적으로 지명도 있는 화가는 아니다. 그러나 일본불교미술사에서는 한 획을 그은 화가로 미술계에 알려져 있다. 불교적인 배경속에 자라난 노우스는 항상 일본예술의 어머니는 인도불교미술이라고 생각했고, 1917년 32세의 나이로 인도의 불교미술을 답사하기 위해 인도로 떠났다.

1931년, 인도의 불교성지들을 부흥하기 위해 세워진 ‘마하보디 소사이어티 협회(대보리회)’가 초전법륜지인 사르나트(녹야원)에 사찰을 건립했다. 법당의 내부에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리기로 결정하고 당시 불교국가로서는 선진국이었던 일본의 불교계에 벽화를 그릴 화가를 요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선발된 노우스는 자금부족과 풍토병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1932년부터 5년에 걸쳐 벽화를 그렸다. 사르나트의 불교사원으로 전세계의 순례자들이 찾는 ‘물라간다 꾸띠 비하르(mulagandha kuti vihar)’의 법당에 22개의 장면으로 그려진 불전도는 전체 길이 44m, 높이 4,3m로, 일본화 기법과 인도불교 고유의 디자인이 혼합된 독특한 화풍을 자랑한다.

이번 특별전에 전시되는 그림은 노우스가 당시 벽화를 그리기 앞서 그렸던 1:1 크기의 밑그림으로, 사르나트의 벽화가 완성된 후 귀국한 그가 조동종의 대본산인 에이헤이지(永平寺)에 봉헌한 것이다. 에이헤이지 측은 이번 전시를 위해 보관 중인 모든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번 전시회의 수익은 인도에 남아있는 원본 벽화의 복원과 보존을 위해 사용 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코로나19 진정시킬 ‘대불’ 조성된다

스마데라, 9월 4일 고불법회
日스님과 예술가들 중심으로
기금 모연 위해 전국 권선도


‘코로나 대불’을 조성을 위해 마련된 ‘권진불상’에 코로나로 중지된 이벤트의 전단지를 붙이고 있다.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신종 코로나가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처님의 힘으로 이를 진정시키고자 대불을 조성하기로 발원한 스님들이 있다. 9월 5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코로나 대불’ 조성을 위해 전국 권선을 나서는 스님들을 소개했다.

9월 4일 오전 고베시에 소재한 천년고찰인 스마데라(須磨寺)의 호마당에서 코로나 대불 프로젝트의 고불법회가 봉행됐다. 코로나 대불의 조성을 발원한 스님은 조동종의 카자마 텐신스님. 현대미술가이기도 한 스님은 “일본은 물론, 해외의 사례를 보아도 천재지변과 유행병이 돌 때 나라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대불을 조성했다”며 발원의 계기를 말했다. 스님은 “지금이야 말로 현대의 대불을 조성할 때”라고 역설했다.

스님이 소속된 예술단체 ‘져먼플렉스 에어라인’의 마에다 신지 대표도 “밝은 마음으로 불안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고, 현재의 상황을 미래에 메시지로 전할 상징이 필요하다”며 대불 조성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번 코로나 대불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불사와는 다르게 진행과 함께 조성계획이 정해질 예정이다. 모금과 권선법회 등을 통해 대불의 크기, 재질, 조성방법, 설치장소가 정해진다. 모금은 권선법회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일 예정이다.

지난 5~6월 사이에 진행된 크라우드 펀딩에서 모금된 385만엔(한화 약 4천 3백만원)은 전국 권선법회를 위한 캐러밴 차량과 권선을 위한 ‘권진불상(勸進佛像)’을 조성하는 데 사용됐다. 텐신 스님은 “캐러밴 차량에 부처님을 모시며 전국을 도는 데에는 부처님께서 평생 유행하시며 중생들의 아픔을 돌보신 데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 펀딩 역시 “몇 사람의 부자가 아닌 최대한 많은 사람이 부처님을 조성하는 공덕에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적용한 것”이라며 “현대의 새로운 탁발법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웃어 보였다.

스님은 10월부터 다시 진행되는 2차 크라우드 펀딩에서 달성 금액들을 제시하고 해당 금액에서 가능한 대불의 소재와 크기, 조성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2차 펀딩부터는 해외 펀딩 플랫폼을 이용, 해외로부터의 보시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코로나 대불 프로젝트의 상징은 권진불상이다. 텐신 스님이 현대예술을 적용해 조성한 권진불상은 1m 가량의 높이로, 불상의 몸에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알리는 신문기사와 개최가 취소된 공연의 포스터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인쇄물들이 붙여졌다.

전국권선은 오는 11월 홋카이도에서 회향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코로나의 확산상황 등의 추이에 따라 변경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불교의학 ‘쏘와릭빠’ 정통성 논란

사실상 印·中간 분쟁 일환
中정부가 중의학 일부 주장


‘쏘와릭빠’의 체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티베트 스님. 사진 출처=글로벌부디스트도어

2,500년의 역사를 가진 티베트 불교의학 ‘쏘와릭빠’에 대한 인도와 중국의 권리 다툼이 시작됐다. 지난 9월 1일 ‘글로벌부디스트도어’는 쏘와릭빠를 둘러싼 인도와 중국의 분쟁을 보도했다.

쏘와릭빠는 티베트어로 ‘치유의 과학’이란 뜻이며, 불교철학에 기반을 둔 불교의학이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쏘와릭빠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약사여래의 모습으로 나투어 설법하신 가르침이라고 믿는다. 실제 모든 의학서의 내용과 처방은 사구게의 형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불교의학인 만큼 병의 근원엔 마음속의 번뇌가 있다고 보아 치료요법으로 명상이나 기도가 처방되기도 한다.

지난 해 인도는 ‘쏘와릭빠’가 인도의 무형 문화유산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유네스코에 등재를 신청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쏘와릭빠는 중국 전통의학인 중의학의 일부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분쟁의 핵심에는 불교나 의학과는 관계가 없는 지역 영유권 분쟁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측은 “티베트 자치구내에서 전해진 장의학(藏醫學)은 중의학의 한 갈래이며, 이것이 인도북부와 네팔 등의 히말라야 지역으로 전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측의 의견은 단호하다. 인도 국립 쏘와릭빠 연구소의 파드마 구메트 박사는 “유네스코 지침에 따르면, 중국은 이 분야에서 영토를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 우리는 쏘와릭빠가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 근간해 8세기 경 티베트로 전해졌음을 티베트 불교에 전해지는 수많은 문헌에서 찾았으며, 이미 유네스코에 증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www.bongsunsa.net

봉선사

수행연금 조성을 위한
“승보공양僧寶供養에 동참합니다”

뿌리깊은 종단, 보람여는 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32(부평리)
전화 : 031-527-1956, 팩스 : 031-527-1958

봉선사 ‘승보공양’은 봉선사교구 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함이며, 부처님 재세시 부터 전해져온 불교전통의 ‘승보공양’을 현대에 구현한 ‘공양’이요, 복짓는 수행입니다.

승보공양 동참방법
- CMS 동참 : 교구내 사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제출
- 계좌자동이체 :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신청

동참계좌 : 우리은행 1006-001-53406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 승려복지회

승보공양 동참문의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 복지국
전화 : 031-527-1956 팩스 : 031-527-1958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 승려복지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32 전화 : 031-527-1956 / 팩스 : 031-527-1958

봉선사 수행연금 신청안내

제25교구 봉선사승려복지회에서는 봉선사 수행연금을 지급하기 앞서 아래와 같이 신청을 받고 있으니 기한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 봉선사교구에 수행하는 재적.재직.문도 스님으로 법계3급 이상 결계를 필한 스님. 단, 미등록사찰,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 스님은 제외
신청기한 : ~2020년 10월 15일까지
신청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승려증사본, 통장사본
*신청서는 방문작성 또는 봉선사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지급개시 : 2020년 10월 25일~ 매월25일
신청문의 : 전화 031-527-1956, 팩스 031-527-1958 010-7357-1958 봉선사 복지국